

광주시 창업친화도시 조성 속도낸다

경영·마케팅·투자·기술 전문가
이달중 창업드림팀 지원 시작
투·융자 연계 금융 지원 강화
200억 청년창업특례보증 운영

광주시가 벤처창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친화도시’를 조성한다.

10일 광주시는 “창업 준비-실행-성장-도약” 등 생애주기에 맞는 성장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창업자들이 창의성과 기술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 전문 컨설팅단인 ‘창업드림팀’을 구성하고 창업희망자에 대한 사

업화 가능성 진단 및 사업화 방법 등을 사전에 멘토링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창업을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창업드림팀은 1월 중 경영·마케팅·투자·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

또 그동안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에 대해 지원했던 창업자금의 지원대상과 유형을 확대한다.

청년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 추진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중장년으로 구성된 세대융합 팀을 신규 지원한다.

창업 실패의 경험을 비판삼아 재도전하는 예비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도 신설하고 이들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을 키우는 ‘성장 사다리’가 될 지원

정책도 대대적으로 펼친다.

기존 예비창업자 중심의 지원을 보완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화자금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전담매니저가 사업화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광주시는 제품 개발 및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기술창업 성공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창업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투·융자 연계 지원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는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지속 운영한다. 현재 상환 부담 없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100억원 규

모로 운용하고 있는 ‘CCVC-광주청년창업지원펀드’ 외에도 광주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달빛혁신창업성장지원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신규로 조성해 지역 우수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현재 I-PLEX광주 내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농성역 내 청년창업 플랫폼 등의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가 가능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하여’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창의력과 기술이 있는 혁신창업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창업지원사업을 적극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 수료식

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문혜옥)은 지난 9일 오전 흥보관에서 늦깎이 만학도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 1단계 수료식을 가졌다. <사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2018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중학과정(3년)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교과수업과 함께 인문학탐방, 창의체험활동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등과정의 필수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으로, 중등 1단계의 경우 연간 40주, 주3회 12시간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성인문해교육 과정 참여 학생들은 필수과목 이수와 함께 지난해 11월 2일에는 현장학습을 통한 역사공부를 위해 강진다원, 하멜 기념관, 강진병영성으로 인문학탐방, 11월 16일에는 양림동 일대를 찾아 광주 바로알기 답사를 실시했다.

수료식에서는 배움을 같이하는 학우들이 주는 ‘니가 참 좋아 상’, 학우들을 위해 굿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학생에게 주는 ‘애썼소 상’, 450시간의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학생에게 주는 ‘개근상’을 시상하고 학생대표의 소감문 발표, 단체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성인문해교육중학과정은 오는 1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방학에 들어가 3월 6일 2단계 과정을 개강하며 2020년까지 3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전 교과 과정을 마치면 중학교 졸업이 인정된다. /유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31일까지 신청자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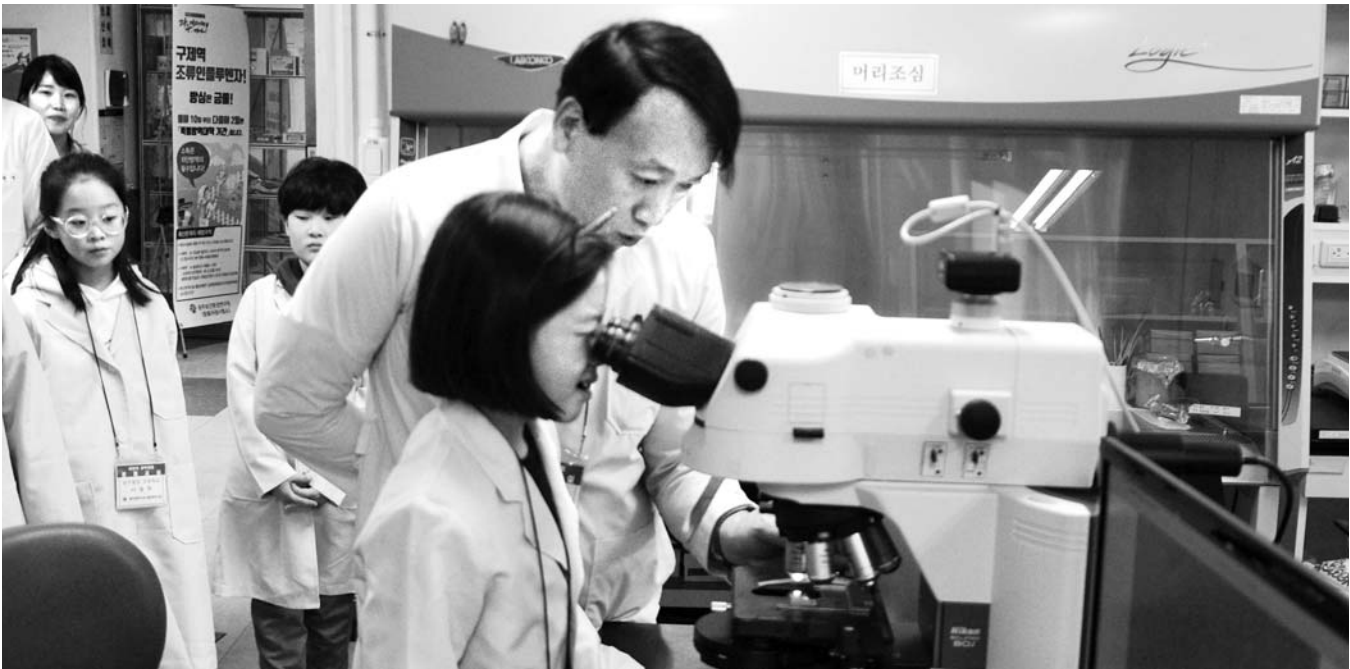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1968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다.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 대상이다. 센터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등 농업 창업기반 조성 비용을 3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인력육성팀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농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는 11명 선정했으며, 현재 이들은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전문교육 지원 등을 받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



보건환경연구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1회 초등학교 3~5학년생 20명을 대상으로 동물교실과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보고, 세포관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북구 부서별 일자리 목표관리제 성과 ‘톡톡’

작년 82개 사업 1만여개 창출
청년 일자리 박람회도 효과

광주시 북구는 “지난 한해 동안 분청 17개 부서 82개 사업에 대한 ‘부서별 일자리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1만2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 9983개의 일자리보다 41개 늘어난 결과로 목표대비 100.4%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969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고, 254명에게 맞춤형 직

업 교육훈련을 지원했다. 또 창업지원 94명, 고용 서비스 1,200명, 고용 장려금 466명, 일자리 인프라 구축 15건 등의 실적을 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과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창업컨설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사업이 정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과 지역 우수기업이 참여한 ‘청년, 내일(My Job)’을 통해, 2018 북구 일자리 박람회’ 개최 효과도 있었다.

또한, 전통공예학교, 주민정보화 교육,

체험환경프로그램 등 각종 자체사업을 통한 재취업 활동을 적극 권장했고 위탁사업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북구는 청년·경력단절여성·실버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등 취업률과 고용보험 가입자수 매년 3% 증가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7대 전략 19개 사업과제를 내용으로 한 민선 7기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일회용 비닐봉투와 착한이별 캠페인

광주시 서구가 지난 8일 풍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과 이별하는 ‘착한이별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10일 서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49.9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또 제과점과 165㎡미만인 슈퍼마켓 등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번에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서구는 주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배부하고 관련 법령 안내와 재활용 활성화 등 전단지들을 배포했다.

서구는 지속적으로 대형마트와 제과점 등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과 무상제공금지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62-360-7323)에 문의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2번지의 4필지, 대지 약540평 (343-2-141평, 343-1-260평, 344-30평 / 341-80평,340-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6차선 도로접, 전면75M
- 대출-22억7000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타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상담후결정
- 문의 - 010.3605.5000